

# 제40절의 숨겨진 역사 - 제14장

## 둘째 화 - 제1부

Jeff Pippenger

2026-06-05

이전 글에서 우리는 첫째 화인 다섯째 나팔의 예언적 특성들을 임박한 일요일 법과 일치시켰다. 마지막 세 나팔 가운데 첫째 것이 마지막 것을 예시한다는 접근에서 다섯째 나팔을 그 마지막 세 나팔의 첫째로 볼 때, 첫째 화에 속한 이슬람의 예언적 역할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지진과 일치하게 된다. 안식일 집회에서 이 글을 논의한 다음 날, 나는 한 친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친구 역시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을 임박한 일요일 법과 일치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타당한 접근인데, 마지막 세 나팔은 곧 세 화이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화, 화, 화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아직 나팔을 불지 아니한 세 천사의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8:13.

마지막 세 나팔은 일곱 나팔 가운데서 구별되는 상징이며, 마지막 세 교회가 처음 네 교회와 구별되고 마지막 세 인이 일곱 인 가운데서 구별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예언적 진리는 여러 해에 걸쳐 자주 다루어져 왔다. 첫째 화와 셋째 화를 알파와 오메가의 상징으로 고찰함으로써 드러나는 빛을 숙고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또한 세 화를 예언의 삼중 적용으로도 고찰해야 한다.

예언의 삼중적 적용은 첫째 화와 둘째 화의 모든 예언적 특성들이 셋째 화 가운데 존재하게 됨을 밝혀 준다. 첫째 화는 아라비아의 이슬람이었고, 둘째 화는 터키의 이슬람이었다. 첫째 화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고, 둘째 화는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는" 것이었다.

### 첫째 화의 고통

그들에게는 그들을 죽이지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하라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 또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는 쏘는 것이 있으며, 그들의 권세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더라. 요한계시록 9:5, 10.

### 둘째 화의 죽음

이에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하여 그 시와 날과 달과 해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더라. ... 이 세 가지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요한계시록 9:15, 18.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 나머지 삼분의 이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 재앙들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여, 귀신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살인과 자기들의 주술과 자기들의 음행과 자기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요한계시록 9:20, 21.

일곱 나팔은 일곱 마지막 재앙을 예표하며, 제20절에서는 그 나팔들이 재앙들이라고 불린다. 미국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이루어진 삼중 연합의 삼분의 일이며, 일요일 법령 때 여섯째 왕국으로서 죽임을 당한다. 그 죽음은 거짓 경배 때문에 초래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 곧 "귀신들과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의 우상들"에 대한 "경배",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로 예표된다.

일요일 예배로 예표된 거짓 예배는 회개해야 할 "원인"이나,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이슬람의 메뚜기들이 가져오는 고통과 죽음이다. 사람들의 삼분의 일, 곧 미국이 일요일 법령 때에 죽임을 당하나, 나머지 삼분의 이는 회개하지 아니한다.

## 화와 천사들

첫째 화와 둘째 화는 밀러 운동의 역사에 나타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에 상응하며, 그 역사는 십사만 사천의 역사에서 글자 그대로 반복된다. 십사만 사천의 역사는 셋째 천사의 역사이며 셋째 화에 상응한다. 밀러 운동 역사의 이정표들이 십사만 사천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것과 꼭 같이,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이정표들 또한 셋째 천사의 역사에서 반복될 것이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어졌으며, 우리는 지금 셋째 기별의 선포 아래에 있다. 그러나 이 세 기별은 모두 여전히 선포되어야 한다. 그것들이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에게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이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문필과 음성으로 그 선포를 울려 퍼지게 하여, 그 순서와 우리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르게 하는 예언들의 적용을 보여 주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가 없이는 셋째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기별들을 출판물과 강론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되, 예언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미 있었던 일들과 장차 있을 일들을 제시해야 한다." Selected Messages, book 2, 104.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들의 과업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결합하는 것이다. 첫 두 기별이 없이는 셋째 기별도 있을 수 없으니, 이는 "첫째와 둘째가 없이는 셋째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서'의 측면에서 참되니, 만일 첫째와 둘째가 없다면 셋째는 실제로 첫째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내용'의 측면에서도 참되니, 첫째와 둘째의 예언적 특성이 셋째의 특성을 밝혀 주기 때문이다. 수학적으로도 첫째와 둘째가 없이는 셋째가 없으며, 예언적으로도 첫째와 둘째의 이정표들이 제외된다면 셋째 천사 안에는 이정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들에게 예언의 계보 속에서 그 위치를 부여하셨으며, 그 사역은 이 지구 역사의 종결에 이를 때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여전히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이며, 뒤따르는 이것과 나란히 전파되어야 한다. 셋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그의 경고를 선포한다. '이 일 후에,'라고 요한은 말하였다.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이 비춤 가운데 세 기별 모두의

빛이 결합되어 있다.” The 1888 Materials, 803, 804.

우리의 일은 밀러라이트 운동에서 “예언적 역사의 노선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십사만 사천의 운동에서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주께서 세상의 죄악을 인하여 세상을 벌하시려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를 거절한 종교 단체들을 벌하시려 하신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결합한 그 큰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업의 중점이 되어야 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7권, 950.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결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내려올 때 땅을 환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일 후에, 요한은 말하였다.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비춤 가운데서 세 기별 모두의 빛이 결합된다.” “땅”이 “환하여지는” 것과 관련된 이 “비춤”은 “세 기별 모두의 빛이 결합될 때” 이루어진다. 밀러 운동의 역사를 십사만 사천의 역사와 두 평행으로 연결함으로써 세 기별을 한 줄 한 줄 결합하는 일은 또한 세 화를 가지고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의 멸망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분리될 수 없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목하였고, 그 기별이 빛나갔을 때 그 기별의 결과는 개신교 교회들의 타락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가 곧 둘째 천사였고, 그 원인은 첫째 천사의 실패였다. 만일 첫째 천사가 없었다면,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와 같은 바벨론의 멸망도 없었을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함께 묶어 준 요소는 “때”였다. 그 “때”(1843)는 실현되지 않았고, 그 실패가 그 “결과”를 낳았다. 그 “원인”은 밀러가 1843년경에 끝날 것이라고 잘못 결론지은 세 예언을 동일시한 오류였다. 곧 1335일, 2300일, 그리고 2520년의 그 세 예언이 1843년에 그리스도께서 구름 가운데 오심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밀러는 믿고 있었다. 밀러가 잘못 이해한 그 시기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개신교도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할 이유를 제공하였고, 둘째 천사가 도래하였다. 첫째 천사는 “원인”이었고 둘째 천사는 “결과”였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분리될 수 없으니, 이는 그것들이 예언적 시간에 의해 예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화와 둘째 화 역시 “시간”에 의해 예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백오십 년의 고통을 가리키는 첫째 화의 시간 예언은, 죽이는 둘째 화의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의 시간 예언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정확히 끝난다. 시간 예언은 첫째 화와 둘째 화를 연결하며, 또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도 연결한다.

첫째와 둘째 화의 시간 예언의 성취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였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세상을 비추기 위하여 내려오게 하였다. 첫째 천사에 관하여 화잇 자매는, 자신이 “그의 사명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비추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셋째 천사와 동일한 사명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연합하는 그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비추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범위와 전례 없이 강력한 능력을 지닌 한 사업이

예고되어 있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재림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일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 모든 선교지에 전파되었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느 나라에서도 목격된 적이 없는 가장 큰 종교적 관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조차도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일어날 강력한 운동에 의해 능가될 것이다.

그 일은 오순절의 날의 그것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의 시작에 성령의 부어 주심 가운데 '이른비'가 주어져 귀한 씨로 싹이 트게 하였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추수를 익게 하기 위하여 '늦은비'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이른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른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게 하시리라" 요엘 2:2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17, 21.

"복음의 위대한 사업은 그 시작을 특징지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보다 더 적은 나타나심으로 마쳐져서는 안 된다. 복음의 시작에서 이른 비의 부어 주심 가운데 성취되었던 예언들은 그 마침에서 늦은 비 가운데 다시 성취되어야 한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바라보았던 '유쾌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사도행전 3:19, 20." 『각 시대의 대쟁투』, 611.

첫째 화와 둘째 화의 때에 관한 예언의 성취는 1840년에 그 천사로 하여금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도록 내려오게 하였고, 이로써 첫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셋째 화의 성취는 9/11에 그 천사로 하여금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도록 내려오게 하였고, 이로써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였다. 땅을 환하게 하는 일은 평행한 적용, 곧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방식으로 두 운동이 결합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세 화의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두 노선으로 함께 짜여 있다. 하나는 내부적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이다. 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업을 나타내며, 그들의 사업은 세 화의 성취에 의해 능력을 받는다. 외부적인 것은 이슬람과 그 예언적 사역이며, 내부적인 것은 그의 백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 날에 관한 야곱의 그의 열두 아들의 상징성에 대한 예언에서 유다는 나귀에 매여 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너희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이라. ...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자요, 네 손은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며,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왔도다. 그가 웅크리고 엎드림이 수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는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의복을 포도송이의 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젖으로 인하여 희리로다.  
창세기 49:1, 2, 8-12.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그 옷을 피로 빠신 분이시고, 또한 예언적으로 “나귀 새끼”에 매인 “극상품 포도나무”이시다. 세 화의 외적인 기별은 세 천사의 내적인 기별에 매여 있다. 첫째와 둘째 천사는 셋째 천사와 평행하여 진행되며, 첫째와 둘째 화도 반드시 셋째 화와 평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 열쇠

니스웨의 전투는, 로마 가톨릭의 치명적인 상처가 머지않아 이를 일요일 법령—곧 셋째 화가 갑자기 임하는 요한계시록 11장의 지진—에 의해 치유될 때, 이슬람의 흑암을 세상 위에 가져오는 “열쇠”이다. 그것은 그 지진의 “한 시간”에 임한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 칠천이 죽었으며,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요한계시록 11:13, 14.

일요일 법은 세상을 위한 짐승의 우상 시험의 때를 개시하며, 니스웨 전투는 두로의 음녀가 이사야 23장의 성취 가운데 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그녀가 기억됨으로써 여섯째 왕국의 정복을 식별하게 하는 열쇠이다. 짐승의 우상 시험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시험이며, 그 결정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이루어진다. 은혜의 시기는 미가엘이 일어설 때 세상을 위하여 마친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이하에 나타난 세상을 위한 짐승의 우상 시험의 때는 미국을 위한 짐승의 우상 시험의 때에 의해 예표된다.

“종교적 자유의 땅인 미국이 양심을 강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일에 있어서 교황권과 연합하게 될 때, 온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그 본을 따라가도록 이끌리게 될 것이다.” Testimonies, volume 6, 18.

미국에서의 짐승의 우상 시험의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의 십사만 사천을 구별하고 인치며, 세상을 위한 짐승의 우상 시험의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의 큰 무리를 인친다.

“외국의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를 것이다. 미국이 비록 앞장선다 할지라도, 동일한 위기가 우리 백성에게 세계 모든 지역에서 닥쳐올 것이다.” Testimonies, volume 6, 395.

니스웨 전투로 상징되는 그 열쇠는 세계를 위한 형상 시험의 때의 시작을 표하는 동시에, 미국을 위한 형상 시험의 때의 끝을 표한다. 니스웨 전투로 상징되는 한 열쇠가 무저갱을 여니, 그로부터 세상에서 메뚜기로 상징되는 이슬람의 홍수가 쏟아져 나온다. 한밤중 외침의 끝에 있는 그 열쇠는, 한밤중 외침의 시작에 미국에서 바로 그 동일한 무저갱을 여는 열쇠에 의해 예표된다.

미국에서의 그 열쇠는 레위기 23장에서 나팔절로 표상되는데, 이는 한밤중 부르짖음의 선포가 시작될 때 나귀가 풀려나는 때이다. 그 열쇠는 내슈빌에 불덩이들이 도착할 때 돌려진다. 나팔절과, 이슬람이 풀려날 때 내슈빌에 대한 공격은, 일요일 법령 때의 니스웨

전투를 예표한다.

일요일 법은 “한밤중” 외침의 선포의 끝이다. 이는 그 외침이 그때에 “큰” 외침으로 바뀌기 때문이며, 그 기간의 시작은 예언적 필연성에 따라 그 끝을 예시하여야 한다. 첫째 화에서 이슬람은 로마의 군대들을 괴롭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군대들은 미국을 예표한다. 그 기간은 백오십 년이었다. 열쇠(니느웨 전투)는 나팔절이 그러하듯 한밤중 외침의 선포의 시작을 표시한다. 레위기 23장에는 나팔절과 또한 초막절인 오순절 사이에 열닷새가 있다.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의 시험 기간 동안의 그 열닷새는 첫째 화에서의 백오십 년의 괴롭힘에 해당한다. 십오일은 백오십의 십일조이다.

그 열닷새(백오십 년)는 삼백구십일 년과 열닷새가 시작될 때 끝난다. 1844년 10월 22일 이래로는 예언적 시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백오십 년의 고통은 나팔절로 시작되는 레위기 23장의 열닷새를 상징하는데, 그로부터 닷새 후에는 기(旗)의 승천이 있고, 다시 닷새 후에는 속죄일의 심판이 있으며, 다시 닷새 후에는 오순절적 부어 주심이 있다.

거기에서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그 시와 날과 달과 해”가 시작된다. “시”는 큰 지진의 시, 곧 일요일 법이다. “날”은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주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움을 당할 때의, 주의 보응의 날이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요, 그들 가운데에는 총명이 전혀 없도다. 오, 그들이 지혜로워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였다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기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쬐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랴? 이는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함이라. 우리 원수들조차 스스로 그 증인이 되느니라.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났고 고모라의 들에서 났은즉,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요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의 잔혹한 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저장되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하냐? 원수 깊음과 보응은 내게 속하였나니, 때가 이르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위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니, 이는 그들의 힘이 다하여 갇힌 자도 없고 남은 자도 없음을 보실 때에 그러하시리라. 그때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신뢰하던 그들의 신들,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하시리라. 신명기 32:28-37.

그 지진의 “시간”은 “그들의 재앙의 날”이다. 그것은 마지막 날들에 증가하는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재림교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들은 자기 집을 그 위에 세울 위조된 반석을 택하였으나, 실상 그들의 반석은 모래였다.

“경고가 주어졌다. 1842년, 1843년, 1844년에 그 기별이 이르러 온 이래 우리가 줄곧 세워 온 믿음의 기초를 흔들여 놓을 어떠한 것도 들어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기별 안에 있었으며,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충실하여 세상 앞에 서 왔다. 우리는 날마다 빛을 구하며 간절한 기도로 주를 찾는 가운데 우리의 발이 놓이게 된 그 토대에서 발을 옮길 생각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만세의 반석과 같아야 한다. 그것이 주어진 이래로 줄곧 그것이 나를 인도해 왔다.” Review and Herald, 1903년 4월 14일.

“월”은 첫째 달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셨고,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시리라.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중이가 먹어 버린 햇수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상하리니,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에게 기이하게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되리니,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엘 2:23-27.

일요일 법의 “때”에 셋째 화의 이슬람이 뜻밖에 타격을 가하고, 라오디게아적 재림교는 뱀의 반석을 의지해 왔으므로 수치를 당한다. 그때, 첫째 달에 늦은 비가 정결케 된 백성 위에 부어진다. 그 시점에 내슈빌 이후의 고통이 있는 뒤 미국은 죽임을 당한다. 곧 도시들의 멸망인 그 고통이 시작되며, 일요일 법의 때에 미국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종말을 맞이한다(곧 죽임을 당한다). 이로써 온 세상을 위한 짐승의 우상 시험의 때가 도래하며, 그것은 아무도 도와줄 자 없이 여덟째 왕국이 그 종말에 이를 때(곧 죽임을 당할 때) 끝난다.

##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상징적으로 이슬람과 연관되어 있으며, 유프라테스는 “풍성한” 또는 “터져 나오다”를 의미한다. 둘째 화에서는 유프라테스에 결박되어 있던 네 바람이 놓이게 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로부터 한 음성을 들으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더라. 이에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하여 한 시와 한 날과 한 달과 한 해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9:13-15.

유프라테스는 약속의 땅의 동쪽 경계를 상징하였으며, 이슬람은 예언에서 말하는 “동방의 자손들”이다. 그들의 예언적 특징은 그들이 제지되었다가 놓임을 받는다는 점이며, 이는 하갈이 사라에 의해 제지된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참으로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의 후손에게도 그러하리라. 이스마엘에 관하여도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번성하게 하며 심히 많게 하리니, 그가 열두 방백을 낳을 것이요,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17:19, 20.

이스마엘은 번성하도록 되었으며, 유프라테스는 번성을 의미한다. 첫째 화의 고통의 백오십 년에 대한 예언이 끝나는 시점에, 이슬람이 놓여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게 될 때, 한 시간과 하루와 한 달과 일 년의 예언이 시작되었다. 일요일 법령 때에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은 현대 로마의 삼분의 일이다. 이슬람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이 부여되던 1840년 8월 11일에 제지되었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이 부여되던 9/11에 놓여났다.

9/11에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면서,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일이 시작되었다. 셋째 화의 이슬람이 9/11에 풀려났을 때, 그것은 인치는 기간 동안 즉시 제지되었다.

“이 이상은 1847년에 주어졌는데, 그때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 형제들이 매우 적었고, 그들 가운데서도 그것의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선을 긋기에 충분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제 그 이상의 성취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 언급된 ‘그 환난의 때의 시작’은 재앙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쏟아지기 직전의 짧은 기간, 곧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계시는 동안을 가리킨다. 그때에는 구원의 역사가 마쳐져 가는 동안 환난이 세상에 닥쳐올 것이며, 나라들은 분노하겠으나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지될 것이다. 그때에 ‘늦은 비’, 곧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큰 음성에 능력을 더하고, 성도들이 일곱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기간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게 될 것이다.” Early Writings, 85.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까지 이르는 “짧은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성소 안에 계시며 “구원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기간이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의 그림자였던 예표적 제도에서, 성소의 정결은 한 해 동안의 봉사 순환 가운데 대제사장이 수행한 마지막 봉사였다. 그것은 속죄의 마치는 일이었으니, 곧 이스라엘에게서 죄를 제거하거나 치워 버리는 일이었다.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행하시는 봉사의 마치는 일을 예표하였는데, 곧 하늘의 기록에 등록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의 죄를 제거하거나 도말하시는 일이다. 이 봉사에는 조사하는 일이,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며, 그것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바로 앞선다. 이는 그분께서 오실 때에는 모든 사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12. 재림에 바로 앞서는 이 심판의 일이 곧 요한계시록 14:7의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선포된 바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각 시대의 대쟁투』, 352쪽.

그분의 백성의 죄들을 도말하시는 일은 산 자들에 대한 심판 동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게 하려 함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기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의 회복의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어야 하느니라. 사도행전 3:19-21.

회개하려면 사람은 살아 있어야 하며, 여기서 베드로가 가장 완전한 의미로 가리키는 그 회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때” 이루어진다. 안식과 새롭게 함은 늦은 비이며, 그것은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려고 내려왔을 때 시작되었다. 그 힘센 천사는 또한 1840년 8월 11일, 이슬람이 제지되었을 때 내려온 첫째

천사이기도 하였으며,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하지 않은 인격체”였다. “새롭게 함”과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이슬람이 놓여 열국을 분노하게 하고, 그 후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동안 제지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9/11은 늦은 비인 새롭게 함과 안식의 때를 표시하며, 또한 “만물을 회복”하는 기간을 표시한다. 1863년의 반역 이후로 교전하는 교회였으나 장차 승리하는 교회가 될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은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이다.

전투하는 교회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상태이며, 승리한 교회는 오순절의 첫 열매인 밀 화제물이다. 9/11은 발람이 그 나귀를 처음 친 때였고, 발람(미국)은 그 기습 공격 직후 곧바로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발람의 나귀는 셋째 화를 이루는 세 화를 상징하며, 그 세 화는 또한 세 천사의 기별과 나란히 진행된다. 그러므로 세 화는 예언적으로 세 천사의 세 단계에 의해 지배된다. 이러한 이유로 발람이 두 번째로 그 나귀를 칠 때 그것은 배증이 되는데, 이는 언제나 둘째 단계에서 그러한 것과 같다. 고대의 문자적 영화로운 땅과 현대의 영적 영화로운 땅이라는 두 포도원 사이에서 이슬람이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쳤고, 즉시 가자에 대한 억제가 가해졌으며, 그 후 이슬람은 내슈빌을 칠 것이다.

내슈빌 타격은 발람의 증언에서 포도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두 번의 기습 공격 가운데 두 번째이다. 내슈빌은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기별이 둘째 천사와 결합하는 예언적 이정표를 표시한다.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기별은 그리스도의 두 제자(둘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함)가 개선 입성의 시작에서 나귀를 푸는 때에 시작된다. 그 행렬은 결국 십자가로 이르게 되는데, 이는 곧 다가오는 일요일 법의 지진을 상징하며, 그때 음녀 로마가 미국의 역사 동안 잊혀진 후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을 이긴다.

음녀가 일요일 법령에서 자기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할 때, 니스웨의 전투는 반복되어 있을 것이며, 세상에서 짐승의 우상 시험의 때가 열리는 것을 표시하는 열쇠가 돌려져 있을 것이다. 니스웨의 전투는 한밤중의 외침 선포의 종결이며, 그 선포는 그 후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환된다. 그 기간의 시작은 내슈빌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표시되는데, 그 또한 니스웨의 전투로 예표되어 있을 것이니, 이는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서 언제나 시작으로 끝을 예시하시기 때문이다. 내슈빌 공격은 예언적 필연성에 따라 로마가 페르시아를 이기는 승리의 요소들을 포함할 것이며, 그리하여 이슬람이 어둠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도록 허용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로마의 형상의 상징이므로, 그는 내슈빌 타격과 관련된 니스웨의 전투에서 우세할 것이나, 이슬람의 홍수를 저항할 그의 힘은 고갈되어 있을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이 1989년에 승리하도록 된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시작된 냉전이었다. 트럼프의 냉전은 파니움 전투이며, 그것은 악티움 전투와 또한 니네베 전투로 예표된 바 있는 일요일 법에서의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 파니움 전투로 상징되는 트럼프의 냉전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예표된 바와 같이, 헌법 안에 있는 정교 분리의 “벽”을 무너뜨리는 일로 이어진다.

내슈빌은 발람의 나귀가 발람의 발을 벽에 짓눌러 상하게 하는 지점을 나타내며, 따라서 그것은 벽에서의 불구를 식별해 준다.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기간은 헌법 안의 분리의 벽에 충돌하는 한 사건으로 시작되며, 이로써 짐승의 우상(곧 교회와 국가의 결합)의

세움이 시작됨을 표시하는데, 그것은 짐승의 우상의 세움이 끝날 때 분리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예표하는 이정표와 짝을 이룬다. 도널드 트럼프는 1798년의 외국인 및 치안유지법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일요일 법령 때의 말함을 예표하는 행정명령으로 예언적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민주당의 세계주의자들과 공화당의 RINO 세계주의자들인 그 대응 세력을 물리칠 것이다. 니스워 전투에서 바사로 예표된 원수들에 대한 그의 승리는, 온 땅에 퍼져 나갈 이슬람의 메뚜기들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힘이 정치 전쟁의 양 진영 모두에게서 소진되게 할 것이다. 트럼프의 짓눌린 발은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선포가 시작될 때의 벽이며, 그것은 끝날 때의 벽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세 화에 대한 고찰을 계속할 것이다.